



• 왼쪽부터 이세현 신옥희 선혜연 씨. 어린이 잡지 <월간 어린이> 준비하는 식구들.

(어린이들의 숨통 틈워줄,
순수한 어른들의 '어린이 잡지' 만들기)

어린이 잡지 <월간 어린이>(가칭) 창간 이끄는 편집장 신옥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자녀의 책을 구입해 선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 그렇다면 어린이 잡지를 골라 선물해 본 경험은 있으신지? 넘쳐나는 잡지 가운데 동화잡지, 과학잡지, 만화잡지 몇 종을 제외하면, 순수 어린이 잡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글쎄, 하고 온라인 서점을

서핑해 본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도서 분류에 '어린이'는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잡지분류에 '어린이' 자리는 없다. 어린이 잡지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인 보리출판사가 주축이 되고, 한국글쓰기교육연구원, 어린이도서연구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전문음반사 삼살개, 극단 사다리, 옛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연구소 등 각종 문화단체의 중심인물이 모여 순수 어린이 잡지 <월간 어린이>(가칭)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사무실에서 만난 <월간 어린이> 편집장 신옥희 씨는 "이번 잡지 창간은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 글쓰기 교육에 한평생을 바친 이오

덕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일"이라며 잡지 <월간 어린이>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전했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설립했던 이오덕 선생님은 어린이 잡지 간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1988년과 1989년, 어린이 잡지 <아이들 나라>를 비정기적으로 간행하기도 하셨지요. 어린이문학, 글쓰기 글, 우리말 등 세 가지 주제로 기획된 잡지였는데 재정이 넉넉지 않아 2호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이오덕 선생님이 작고하신 뒤, 아이들을 살리고 제대로 키우고 싶어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보리출판사에서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바랐던 어린이 잡지 간행을 기꺼이 맡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뜻이 곧 출판사의 철학이기도 해, 보리출판사가 앞서 할 일이라는 의견에 모두가 동감했던 거죠."

잡지창간을 결정하고 잡지팀을 구성한 보리출판사는 일사천리로 작업을 이어나갔다. 파주 출판단지로 옮긴 출판사를 두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마련하는가 하면, 이오덕 선생에게 교육사상을 배웠던 분들과 각종 어린이 문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 동참을 권유, 윤구병 박문희 정병호 이주영 조월례 백창우 황윤옥 박재동 씨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어냈다. 인프라가 대단했던 만큼 한 달에 한 번 갖는 정기모임에서는 잡지기획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읽을거리를 넘어 잡지를 중심으로 어린이 연대활동을 가져보자는 의미 있는 기획도 제안되었다.

"어린이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잡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화마당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말을 읽고 쓸 줄 아는 아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잡지로 생각한 만큼 주 독자 연령은 취학연령인 8세로 정했습니다.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예능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며 사회편입의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충분히 놀 줄도 알고 자기 일을 찾아 할 줄도 알아야 하

는 나이입니다."

잡지 창간에 동참하는 단체들의 이름을 보아 알 수 있듯, 잡지 <월간 어린이>는 어린이가 누릴 모든 것을 담을 계획이다. 개략적인 콘텐츠만 들어도 귀가 솔깃한데, 도시 속의 아이들을 자연으로 이끌 '생태 학습', 몸을 움직여 아이들을 놀게 할 '전래놀이와 노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어린이와 일', 함께 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어린이 인권', 아이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참여마당' 등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많은 거리가 마련된다. 주독자는 어린이지만 별책으로 '어른책'도 함께 내용을 생각이다. '어른책'은 부모들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맡게 된다.

"아이들에게 건넬 잡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려운 시절에도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운동을 펼쳤습니다. 1920년대 간행된 잡지만 해도 <어린이> <별나라> <신소년> 등 무려 16종이나 되지요. 오목한 시절, 어린이 잡지 간행이 활발했던 까닭은 아이들을 살리고 키우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제대로 만들려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일을 간과 해선 안 됩니다."

오는 8월에 창간호를 선보일 <어린이 잡지>는 현재 40퍼센트 가량 일이 진척되었다. 잡지팀은 틈만 나면 잡지 이름을 생각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잡지이름을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정하는 제목과 아이들이 자신들이 볼 것을 정하는 제목은 분명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어린이 문화단체 연대에 관한 건도 부지런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연대기구가 꾸러질지, 연대기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참 삶을 가르칠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책과 현장을 통해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습니다."

한편 잡지 창간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신옥희 씨는 어린이 출판에 있어 베테랑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어린이 노래운동을 해온 작곡가 백창우 씨와 의기투합해 만든 '보리 어린이 노래마을' (전 6권)로 그는 작년 한국백상문화상 아동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이력으로 잡지의 질을 가늠해 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책 출판 10년 외길, 거기에 부모된 이로서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마음까지 더한다면 <월간 어린이>는 미쁜 점수를 충분히 얻고 있다.

"기형적으로 축소된 어린이 잡지 시장이 <월간 어린이> 창간을 계기로 크게 일어났으면 합니다. 좋은 잡지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건네는 기쁨도 크겠지만, 많은 어린이 잡지 가운데 선택받는 잡지가 되는 기쁨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의 숨통을 터워주는 잡지로 오래도록 많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잡지가 될 것입니다."

'순수 어린이 잡지'라는 이름 속의 '순수'는 어린이를 위해 명명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이렇듯 잡지를 만드는 어른들의 순수한 마음도 깃들어 있어, 그 '순수'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첫 책을 만나기까지 세 달이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잡지가 나오기 전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라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8월이 오면, 경중경중 뛰 어다니는 아이들의 손에 <월간 어린이>한 권이 저마다 들려있겠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